



도쿄의 치안을 지키는 110번

110번 신고 시 꼭 전달해야 할 내용

-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장소(주소나 목적이 되는 점포 또는 건물, 층수 등)
- 신고 몇 분 전 일인가
- 피해나 목격한 상황, 부상자의 유무
- 범인의 성별, 인원수, 연령, 복장이나 도주 방향 등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교차로명이나 건물 등의 목표물을 알려 주세요.
또는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기의 관리 번호로 신고(발생)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나 자동판매기에 주소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봇대·건물의 주소 표시



교차로 이름, 목표가 되는 점포 및 건물 이름



도로표지판 관리번호



신호등 관리번호



자동판매기 주소 표시

사건, 사고로 도움이 필요할 때! 110번 고민, 걱정 #9110

'살려주세요!' 긴급한 당신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신지령본부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110번 접수 담당자와 무선지령 담당자가 최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의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지령본부는 110번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지령이라는 통신지령업무를 통해, 도쿄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110번 접수부터 범인 검거까지의 흐름



110번 신고 접수



무전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림



지령을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



경비정에 의한 수상 추적



순찰차에 의한 추적



헬리콥터에 의한 상공 추적

2023년도 110번 접수 상황

총 접수 건수 약 213만 건
평균 접수 건수 약 5,840건
(1일 평균)
최대 접수사안 **교통사고**
(약 23만 5,090건)



범인검거

110번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사건·사고 등은

긴급 신고는 110번

- 방금 범죄 피해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 범죄 현장이나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는 **11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걱정 등은

경찰 상담 다이얼 #9110

- 경찰서에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 경찰 상담 다이얼 #9110으로 전화를 걸면,경시청 종합상담센터에 연결되고, 상담 내용에 따라 전문 창구로 안내해 드립니다.

110番

#9110